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청년들, 지역발전가능성 실질적 임금 격차 해소 갈망'

전북연구원 '일자리 질 인식·정주 여건' 조사 결과 월 평균 임금 293여만원... 희망 임금 369여만원 정주 핵심 요건은 '지역발전가능성' 이 가장 높아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지역의 미래 발전가능성과 실질적인 임금 격차 해소를 꼽았다. 단순한 일자리 개수 늘리기보다는 소득, 시간, 성장이 보장 되는 일자리의 질 개선이 정주를 결정 짓는 핵심 기제라는 분석이다.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은 15일, 전북 거주 및 활동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 경험과 일자리 인식 조사 결과를 담은 '전북 청년의 일자리 질 인식과 정주 여건 개선 방향 (2026 POLICY BRIEF Vol.68)'을 발표했다.

전북 지역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의 월 평균 임금은 293.8만원인 반면, 이들이 희망하는 임금은 369.2만원으로 나타나 약 76만원의 인식 격차가 존재했다. 이는 현재 제공되는 보상이 생활비나 노동 강도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일자리 만족도(5점 만점)에서도 고용안정성(3.82점)은 높게 나타났으나, 임금수준(3.05점)과 역량개발(3.05점), 경력향상(3.11점) 등 미래 지향적 지표는 평균(3.28점)을 밑돌아 질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 형태에 대한 욕구도 뚜렷했다. 전북 청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3시간이었으나, 절반 이상(50.1%)이 주 40시간 근무를 희망했다. 현재 유연근무제 실시율은 27.0%로 낮은 수준이지만 청년들은 개인 시간 확보를 위해 시간선택제(30.6%)와 시차출퇴근형(23.8%)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전북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건은 지역의 발전가능성(55.4%)이 가장 높았으며, 직장 등 생활공간(52.8%)이 뒤를 이었다.

이는 청년들이 단순히 현재 직장의 유무를 넘어 지역의 미래 비전을 보고

정주를 결정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초기 자금 마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돈대출 지원(64.4%)과 보증금 보호 강화(42.3%)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이었다.

전북연구원은 청년들의 가치관이 소득, 삶의 질, 성장 가능성으로 분화되고 있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생계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제작자 자산 형성 및 생활 안정 패키지 지원, 워라밸과 생활 안정을 지향하는 집단을 위한 유연근무 도입 인센티브 및 일자리-주거 복합 모델 구축, 그리고 성장·경력개발을 중시하는 청년들을 위한 고도화된 직무 교육과 지역 내 우수 일자리 정보 네트워크 강화 등 다원화된 가치관을 반영한 맞춤형 3대 정책 모델을 입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를 맡은 전희진 책임연구위원은 "전북 청년의 이탈을 막으려면 단순히 일자리 공급에 치중하기보다 소득·시간·경력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삶의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만호 기자



전북대 피지컬 AI 실증랩을 찾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점검하고 나섰다.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15일 전북대학교를 방문해 '피지컬 AI 제조 기술실증랩'을 <관련기사 4면,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도, '지역성장펀드' 정부 추경 600억원 확보

정책자금 마중물로 민간·금융 등 결집, 1000억 원팀 설계 완료 피지컬AI·이차전지·바이오·수소 등 전략산업 우선 발굴·투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정부 추경 예산 600억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성장펀드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하며, 비수도권의 투자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모태펀드와 지자체 자금을 결합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기업 운영 자금 지원이 아닌 지역 유망 기업이 중견기업·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예산은 국외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사업 예산으로, 전북은 추가 재원 투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최우선으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지위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도는 예산 확정과 동시에 즉각적인 펀드 가동 체계에 들어갔다. 이미 정책자금 600억원을 마중물로 지역 행정(170억), 금융(200억), 대학(100억), 선배 기업(100억) 등 가용 역량을 결집한 1,000억원 규모의 '원팀 펀드' 설계를 마친 상태다. 연내 운용사(OP) 선정을 마무리하고 조항 결정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으로, 고금리와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에 적기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투자 분야는 전북의 전략산업인 피지컬 AI·이차전지·바이오·수소 분야 기업을 우선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이번 펀드를 발판으로 수도권 대형 VC(벤처캐피탈)의 전북 기업 공동 투자를 유도하는 유인책도 강화해 외부 자본의 지역 유입을 적극 이끌어낼 예정이다.

IPO 가속화 지원 데스크 운영, 유니콘 엔진 펀드 연계, 이차전지·바이오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등을 묶은 풀 패키지 후속 지원을 통해 투자 효과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북은 비수도권 최초로 1조 벤처펀드를 조성한 데 이어 이번 지역성장펀드까지 더해지면서 '창업-성장-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갖추게 됐다. 최근 3년간 TIPS 선정 기업이 14배 급증하고 78개 사가 3,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벤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그간 비수도권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모태펀드 연계 구조 설계, 지역 투자 생태계 구축 등 행정적 기반을 다져왔으며, 한병도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함께 준비된 실행력이 이번 최우선 지위 확보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10만호 기자

민주 전북도당 선관위 광역의원 1차 경선 돌입

16~17일 권리당원 ARS 투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회장 박영자)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1차 경선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도당 선관위는 15일, 진안·임실·순창·고창 2선거구를 대상으로 한 1차 경선을 오는 18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100% ARS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날인 16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당원이 전화로 받는 '수신 ARS' 방식으로 이뤄지며, 둘째 날인 17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발신 ARS'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신 투표는 전일 참여하지 못한 당원에 한해 가능하다.

경선 지역별 후보는 다음과 같다.

진안군은 박주홍·전용태 후보, 임실군은 권규중·박정규·장종민 후보, 순창군은 신정익·장승필 후보, 고창군 2선거구는 김정강·김태환 후보가 각각 경쟁한다.

한편, 경선 결과는 17일 오후 6시 30분 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10만호 기자

전국 곳곳 누비며 전주 하계올림픽 알린다

도, 전국 축제·체육행사 현장 중심 '체감형 홍보' 본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전국의 축제장과 스포츠 현장을 누비며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에 나선다.

도는 오는 24일 경남 김해에서 열리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시작으로, 국내의 관광객과 체육 관계자들이 집중되는 주요 행사 현장을 찾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의 당위성과 비전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번 홍보는 체감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사장마다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홍보영상 송출과 참여형 이벤트를 운영해 방문객들이 올림픽의 필요성과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

해하고, 공감과 참여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은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4월 29일) △청남대 영춘제(4월 30일·청주) △익산 서동축제(5월 3일) △한평나비축제(5월 3~4일) △전국장애인소년체육대회(5월 12~15일·부산) △전국소년체육대회(5월 23~26일·부산) △곡성장미축제(5월 29~30일) 등이다.

민간 참여 기반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릴레이 응원 캠페인'도 확대된다. 이 캠페인은 지난 3월 전주 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를 중심으로 출범해 기관·단

체가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며 유치 공감대 확산을 이끌고 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전주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전북지회도 전북육상연맹 등 다양한 분야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도는 참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캠페인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치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장 홍보와 캠페인을 병행해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높이고 유치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10만호 기자



정읍시의회
www.jcc.or.kr